

이름을 들추고 들추었더니 그 안에 청렴한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이 경미

바랜 빛깔로 해묵은 세월이 가늠이 되는 한 장의 상장.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이미지로 인해 터무니없이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있는 어떤 수상 보도로 인해 대중은 녹아들고, 자격 없이 거품으로 인기 물이를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며 속내가 거북할 즈음이었다.

그 즈음의 내 정서가...그런 즈음에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눈물나는 기억을 품고 있는 내 남편의 상장 한 장은 흔들리던 내 정서를 참으로 축축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묻어두었던 그 해 기억의 시간들이 날 지탱하고 있었기에 쉽지 않은 세월 속에서 세간의 엄친아와 엄친딸로 불리는 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묵은 기억으로 인한 축축함은, 상장에 박힌 1998년 그 해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했다.

결혼과 함께 스물다섯 해를 한결 같은 얼굴로 동고동락 해온 내 남편은 천성적으로 약거나 께가 많은 사람이 못 되는 데다 참으로 반듯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그의 첫 직장은 당시에 검은 속내가 많이 숨겨있는 회사라 남편은 참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졸 공채 직원을 처음 모집했던 해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인 남편은 전공과 무관하게 그저 자기 관할 구역의 안전 점검 시설을 검사하러 다니는 일을 했었다. 취업 당시 품었던 야망과 달리 두세 시면 퇴근을 해 집에 돌아오던 남편은 시간도 여유로웠고, 설명이 곤란했을 넉넉한 경제력이 있었음에도 직장 생활을 참으로 버거워 했다.

이유는 관례 때문이었다. 당시엔 안전 점검은 요식 행위일 뿐, 각 업소마다 봉투를 만들어 찢러 주던 시절이었다. 시설 안전 점검 요소들 자체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항목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던 문제점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시설 안전 점검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게 만들었던 뒷돈이 공공연한 관례였던 시절이었

다. 점검을 하러 가면 점검 받을 준비 대신 준비되어 있던 것이 흰 봉투였고, 개중에는 어려운 업소들도 있어 남편은 그 관례를 버거워 했다.

하지만 그 관례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용기가 없고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길들여진 업소 사장들이 봉투를 거부하면 더 큰 봉투를 바라는 줄 알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저 관례대로 순응하는 게 서로가 편한,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렵게 들어가고 어렵게 공부해 나온 대학 졸업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다. 양심이 허락지 않은 봉투까지 걸려있으니, 남편은 줄곧 직장을 그만둘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과거의 모든 뒷돈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감시가 되었고, 관례가 무너지게 되면서 남편도 그럭저럭 회사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원에서 학업을 잇던 남편에게 새로 생긴 연구소로 옮길 기회가 주어졌고, 남편은 연구하는 일을 너무도 즐겼다.

그러던 중 한 도시에서 사고 신고가 들어왔다. 누설로 인한 사고이긴 했지만 인명 피해도 없었고, 아주 작은 사고라 그저 대충 보고해서 상황을 종료 시켜도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니었다. 회사의 분위기도 그랬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남편은 가스 사고라는 게 조심하고 예방을 하면 얼마든지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서 반드시 누설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로 남편은 누설 신고 접수가 들어온 플라스틱 배관의 lot number(가스관을 만든 날짜, 사람, 설비, 재료 등을 기록한 번호)를 찾아내어 검사를 시작했다. 외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설의 원인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 남편은 오랜 시간 누설의 원인을 찾는 일에 몰두했다. 심지어 대학교의 연구실들을 빌려 아예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검사와 조사를 했다.

나는 그 때 둘째 아이를 임신해 입덧이 심한 상태라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을 때였고 큰 애는 방치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다. 회사에서도 '원인 불명'으로 처리하길 은근 바라는 눈치가 느껴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냈을 경우 그 원인이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어설플 경우 후 처리도 그렇고 가스관을 생산한 회사의 손해도 그렇고 복잡할 것이 눈에 뻐한 데다가, 큰 사고도 아니라 주목하고 있는 눈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덮어버리는 게 오히려 조용하겠다는 생각이었던 듯싶다.

하지만 보이지도 짐작도 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느라 며칠 만에 파리에 젖어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내 안의 아이가, 그리고 자라고 있는 큰 아이가 아빠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만큼 올곧은 성품이 자랑스럽기까지 했기에 인내하며 격려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남편은 원인을, 그것도 아주 정확한 원인을 찾아냈다. 원래 플라스틱 가스배관은 플라스틱 원재료 알갱이를 180°C에 녹여서 냉각을 해야 하는데, 260°C나 되는 높은 온도에 녹여서 냉각을 하다 보니 충격에 의한 강도가 유지가 되질 않아 크랙이 생겨 누설이 된 것이었다. 남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냈고, 회사에 보고를 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시작했다. 육덕 같은 체격의 남편이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는 몸살로 앓아누웠을 만큼 혼신을 다해 찾아낸 원인이었으나, 당시 가스관을 생산했던 D사는 회사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책임을 변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정확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가스 누설이 되었던 lot number의 가스관은 260°C에 녹여서 냉각이 된 정확한 사실' 앞에서 더 이상의 변명이나 책임 회피는 통하지 않았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남편은 같은 lot number의 가스관 수거를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일대에 묻혀있거나 판매가 된, 같은 lot number의 가스관 전부가 수거됐고 폐기되었다. 회사의 손해가 두려워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에 대한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던 가스관 제조사는 남편의 완벽한 조사 보고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사과를 표했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받은 상이 바로 남편의 이름이 박힌 , 지금은 빛바랜 상이다. 남편이 상을 받아오던 날, 나는 임신 7개월 짜였고 다섯 살짜리 꼬마 큰 아들과 함께 우린 작은 가족 파티를 했었다. 보도가 되지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아주 행복하게 말이다.

그때 만약 남편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썩은 양심을 가지고 '원인 불명'이라 처리를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난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들릴 때면 그 때의 남편을 습관처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우리 집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는 남편의 해묵은 상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면, 이 상에 감추어진 남편의 탐욕이나 야망이 아닌 '바른 양심과 정직한 성품이 일구어 낸 수고'를 알기에 난 그 상이 말할 수 없이 보배롭게 느껴진다.

해가 여러 번 바뀌면서, 남편도 여러 사연으로 이직을 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핵심 기술자로서 지나온 분야 마다 제대로 된 자취를 남긴 남편이지만, 그 울곤은 성품으로 불이익이 없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난 보여지는 것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품 같은 인생보다, 그리 단단한 보석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남편의 청렴한 삶이 만들어 낸 인생을 내 아이들에게 교육했고, 아이들 또한 아빠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거품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엔, 그 '이름' 앞에 <청렴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름을 들추고 들추었더니 그 안에 '청렴한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나의 이름이길 소망하며 숨을 고른다.